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광덕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광덕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연혁실에 들리시어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장이 걸어난 자랑찬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아버 이수령님께서 1971년 11월 30일 새로 건설된 광덕돼지공장에 몸소 나오시어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해 바쳐 오신 수령님의 헌신과 로고는 나라의 방

방곡포 그 어디에나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이어 종합조종실, 비육호동, 새끼낳이호동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현대화정형과 기술장비상태, 사양관리, 고기가공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방대한 개건현대화공사를 끝내고 고기 및 가공품생산을 늘여가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아버 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비육9호동에 들리시어 살찐 돼지들이 옥실거리고있

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돼지호동들에서 온도보장대책과 배통체계를 잘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한해에 2만마리의 새끼돼지를 받아낼수 있게 건설한 새끼낳이호동에 가시여서는 어떤 종자를 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교잡해내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비료들을 보시고 돼지배설물을 리용하여 땅의 지력을 높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것은 잘한 일이라고, 축산과 농업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고있는것이 기쁘다고 치하시였다.

공장의 특성에 맞게 단백곤충양식기지를 건설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는데 대해서도 평가하시였다.

돼지고기통졸임과 꿀바싸, 순대 등을 한해에 200t이상 생산할수 있게 고기가공기지를 잘 꾸려놓는데 대해서도 만족해하시면서 군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통졸임과 같은 고기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메탄가스화가 실현된 40여동의 살림집들을 새로 건설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종업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광덕돼지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돼지고기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고 군인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광덕돼지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선로동당의 축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가공품을 생산하여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985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985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맞이한 군부대군인들은 겹쌓인 피로도 풀릴 사이없이 머나먼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초소를 찾아 주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겨워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격정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군민들에게 손을 저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군부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수많은 어려어있다고 하시면서 새 세대 군인들속에서 뜻깊은 사적자료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부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도록 하고있는데 대해 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부대의 입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군사강실을 돌아보시면서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의 훈련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군부대의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훈련을 힘있게 벌려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조직지휘할수 있게 준비하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군부대군인들이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훈련도 전투라는 혁명적인 훈련열풍속

에 명령만 내리면 그 어떤 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필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억세게 준비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이어 군인회관, 도시설을 돌아보시면서 군민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진행정형을 알아보신 다음 직속구분대 군인들이 리용하는 식당에 들리시어 병사들의 식생활정형을 친어버이심정으로 헤아려주시였다.

식당취사장의 조리대에 차려놓은 주부식물들을 한가지, 한가지 세심히 보아주시며 올해 풍농사는 어떻게 되었고 하루에 얼마나 먹이는데, 고기는 정상적으로 공급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주시였다.

고기와 물고기를 떨구지 않고있으며 올해에도 풍농사를 잘해 매 군인당 하루 200g이상 먹일수 있게 되어 최고사령관감사

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일군들이 일을 잘한다고, 기별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는데도 이만한 수준이면 병사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기뻐하시였다.

주변산들에 혼한 산나물을 뜯어 군민들에게 먹일데 대한 아버 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관철하여 올해에도 도라지, 두릅나물, 참나물, 분지매미를 비롯한 44종의 산나물을 많이 채취하여 말리기도 하고 절임도 했다는것을 아시고 몸소 오이만 한 큰 도라지를 들어보시며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이날 군부대주둔지역에 위치한 고아골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천리혜안의 예지와 군사적지략으로 미제의 《신공세》를 짓부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군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적들의 침략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경계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데 대해 다시금 높이 치하시였고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지휘관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훈련을 잘하라고, 훈련을 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군부대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기둥, 강력 한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아버지, 통일의 태양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여

해외동포들의 권위있는 조직의 하나인 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력사는 50여년을 헤아린다.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고귀한 애국유산이다.

세계에는 나라마다 해외교포들이 있지않고 그 어느 나라에도 민족의 대하에서 튀어나온 하나의 물방울과도 같은 해외교포들의 민족적권리와 생존권을 위해 힘을 기울인 령도자는 없다.

망국과 더불어 이국땅으로 뿔뿔히 흩어지던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넘겨하시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분은 아버 이수령님이시였다.

수령님께서 항일대전의 날날에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망국의 실을안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는 재일동포들에게 조국해방의 밝은 서광을 안겨주었다.

재일동포들이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해방의 구명으로 우리들머 그이의 령도밑에 무장투쟁에 참가하려 백두산을 찾아 떠났으며 판부련락선 《고안마루》 3등선실에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글발을 게시하고 등사기를 항일유격대에 보내는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벌린것이 바로 그 시기였다.

해방후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남먼저 헤아리신 아버 이수령님께서서 《재일 100만동포들에게》라는 력사적인 공개서한을 보내시어 동포들에게 재생의 활력

과 무한한 힘을 북돋아주시였다.

승고한 동포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수령님께서서 공화국이 창건되었을 때에도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재일동포들을 먼저 생각하시였다.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기념행사와 경축연회에 재일동포대표들이 참가하지 못한것을 두고 못내 서운해하신 그이께서는 후날 그들을 평양으로 부르시였다.

어느날 그들을 만나신 수령님께서서 동포들의 생활현편과 자녀교육실태며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처사에 대해 동포애의 정으로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재일조선동포들은 과거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에 조국을 빼앗긴 땅국민으로 이국땅에 끌려가서 온갖 멸시와 박해를 받았다고, 그러나 오늘에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 되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달성할것을 기대한다고 뜨겁게 고무격려하시였다.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버 이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재일동포들이 있고 동포들의 마음속에는 수령님께서 계시었기에 그들은 외로움을 모르고 조국의 완전독립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해 줄기차게 투쟁할수 있었다.

재일 동포들에 대한 아버 이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은 가렬치절한 조국해방

전쟁시기에 더욱 뜨겁게 미치였다.

당시 일본땅에서는 재일동포들이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을 결성하고 반미정권을 벌리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운동을 줄기차게 벌리고있었다. 그러나 민전의 지도권을 쥐고있던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에 물젖은자들은 자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활동을 외면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일본의 민주화투쟁의 일환으로, 국좌적이며 모험주의적인 그릇된 길로 끌고 갔다.

이것은 일본당국으로 하여금 재일동포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의 도수를 한층 격화시켰다. 하여 재일조선인운동과 동포들의 운명은 생사기로운에 놓이게 되었다.

전쟁의 종하를 함몰에 지니시고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돌보시는 분망하신 속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를 통찰하신 수령님께서서 재일조선인운동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면 남의 나라 혁명에 복종할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을 위하여 참담하게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오늘의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구원하는 길이며 재일동포들의 넘친다 지향에 맞는 참된 애국의 길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아버 이수령님의 사랑속에 재일조선인운동은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방향전환을 할수 있었으며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한 해외교포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던 주체43(1954)년 9월이였다. 재일조선인운동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수령님께서서 재일동포사회에 새로운 조직을 내오도록 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 조직은 재일조선인의 생활문제, 공화국공민권옹호문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보장문제, 조국통일문제 등을 기본으로 하여 공화국의 지도도에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길을 밝힌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재일동포들은 《알길이 환히 띄었다. 천백배의 용기가 난다.》고 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못기 위해 적극 떨쳐나섰다.

인제도 위인을 만나야 재능을 발휘할수 있다는 말이였다. 주체89(2000)년 10월 어느 날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조국을 방문한 최홍회선생을 만나신 자리에서 선생이 우리 수령님을 찾아 조국에 오기를 정말 잘하였다고, 그렇게 하였기때문에 선생의 운명과 태권도가 빛이 나기 시작하였다고 하시였다.

돌이켜보면 그가 지난 1970년대말 조국을 처음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태권도는 목걸이를 겪고 있었다. 최홍회선생에 의해 1966년에 결성된 국제태권도련맹은 초기에는 큰 걸음을 떼었으나 그후 불순세력들의 모해와 분열책동에 의해 점차 본연의 궤도에서 탈선하여 체제를 거둬하고있었다.

태권도의 발전과 보급에 대한 태권도의 운명은 태권도인들의 깊은 우려와 실망을 자아내고있었다.

그러던 1980년 최홍회선생은 태권도시범단을 인솔하고 공화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를 계기로 그의 태권도 활동은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다. 공화국에서는 국제태권도련맹산하의 조선태권도위원회가 발족되어 태권도

활동과 보급에서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적으로도 태권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보급이 활발해졌다.

그무렵 최홍회선생의 심중에는 늘 품어온 소망이 굴뚝처럼 북받쳐올랐다. 그것은 《태권도백과사전》의 편찬이였다.

《칼끝은 2cm만 비껴나가면 되고 혀끝은 9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붓끝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듯이 태권도로서 후세에 애국의 자욱을 남기려는 최홍회선생에 있어서 태권도기술의 종합적인 백과사전을 편찬하는것은 평생의 희망이고 꿈이였다.

태권도의 발전과 보급에 온 정력을 다하는 최홍회선생의 노력과 애국충정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조국에서 《태권도백과사전》 발행사업이 진행되게 되었고 《태권도백과사전》의 편찬발행은 장군님을 신뢰하는 길에서 그가 받아안은 행운이고 영광이였다. 선생은 태권도발전을 증시하시

는 장군님의 령도에서 열렬한 민족애를 보았고 《태권도백과사전》출판에 관심을 돌리시는 그 은덕에서 위대한 애국을 보았다.

백과사전을 집필함에 있어서 선생은 태권도의 핵심이 자 자신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만든 틀에 민족의 넋을 담기 위해 고심을 기울였다. 3 200여개의 동작들이 들어 있는 틀의 매 명칭에 민족

백과사전》이 발행되어 태권도는 명실공히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로 계승발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최홍회선생은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었다. 장군님께서서 최홍회선생의 애국활동과 태권도발전에 기울으신 믿음과 배려를 한량없이 없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평양에 태권도관을 세우고싶어하는 선생의 청을 들어주셨고 세계태권도인들의 소망도 헤아리시어 손수 친필로 《태권도전당》이라고 써주시였다.

오늘날 태권도는 세계 백수십여개 나라의 수천만여명의 태권도인을 가진 권위있는 무도로 무술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수천년의 무술력사상 태권도와 같이 사상과 정경,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진 무도는 인제까지 없는것이다.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귀중히 여기시고 길이 물려가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관심과 배려에 의하여 정통무도 태권도는 민족의 넋과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며 세계적인 무술로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선군침송의 메아리

최근 남조선인터넷 《자주인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자주 찾는 곳의 하나는 단천항 건설장일것이다. 단천항은 섬도 곳도 없는 깊은 날바다를 돌아 끊크리드구조물 등으로 방파제를 건설하여 만드는 100% 인공항구이며 제련소에서 생산한 마그네샤와 마그네샤크

북의 자립경제건설

은 일이 아닐수 없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자세로 완벽하게 항을 건설하되 매년에는 반드시 배고동소리가 단천항에서 울릴수 있게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10년은 걸린다던 최천2호 발전소연계공사를 2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한것 도 그렇고 8개월만에 40층이 넘는 아바트기본골조를 올리고 10년도 넘게 걸린 대계도간석지급 난공사인 단천항을 3년이라는 기간에

완공했다는것을 보면 북에 혁명적인 기술이 개발된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정도이다. 단천항은 100% 북의 힘으로 건설되고있다. 이것은 북이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자립경제를 확고하게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날바다를 막더라도 단천제련소안에 항구를 건설하고있는것이다. 확고한 자주의지를 다시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본사기자

회고록으로 보는 위인의 영생

해방의 환호성이 분출했던 8월이 왔다. 통일대통합의 열파로 온 강토가 진동하는 8월이다. 이즈음 경향각지에서 조국의 해방과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지공을 추억하며 그분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찾

는 열독벽이 더 크게인다. 5년전, 천봉지통의 그 7월이후에도 끊기지 아니하고 속건되는 회고록이다. 력사의 경리로 펼쳐지는 회고록에서 나는 해방의 은인이신 주석님의 영생을 본다. 더불어 통일당상에 서계실 래일의 그분을 숭엄하게 우러른다.

《미래연구회》회원 김민주

종교인들, 자산가들과 제휴하였다. 《일숙》 조선이 《창해》 일본을 이기고 아메리카 《상승사단》들을 《합정광》에 처넣은 대승의 비결이 주석님의 이러한 단합에 있었다. 력사의 역풍속에서 굳건히 다져진 강성대국의 리전도 주석님의 단합에 있다. 회고록을 탐독하면서 나는 자주와 함께 민족대단결이 민족이 생존번영하는 유일한 출로임을 재삼 터득했다. 회고록의 이런 사상과 철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밝혀주고있다. 대불침입이 어느 시대나 위인이 없지 않았고 회고록을 남긴 성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주석님의 회고록에는 견줄 수 없는것이있다. 주석님의 회고록에는 문장들은 평이해도 우주를 깨우치고 말씀들은 간명해도 세기를 여는 운명개척의 진로가 있었다. 우리 민족

과 지구촌의 인류가 나아가 할 새 세기의 청사진이 있었다. 주석님의 회고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과거로 가는것이 아니라 멀리 앞으로 간다. 여기서 자주와 단합의 철리로 이룩하신 탁월한 업적에 경탄하게 되고 이념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게 된다. 금세기의 명마루에서 뒤돌아보면 기실 주석님처럼 현대사에 거봉과 같은 거창한 업적을 쌓으신 위인은 없었다. 위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친 업적의 크기만큼 영존한다는 말이 있다. 주석님의 80평생업적은 세기의 못위인들의 공적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전무후무할 업적이다. 민족을 위해 바친 주석님의 위대한 심장에 민족은 영생의 숨결을 드렸다. 그래서 주석님은 가시지 않았다. 자주와 세기를 열어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영생하신다.

그러나 김정일령수님에 의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계승본)속간은 주석님의 력사와 민족의 명맥을 면면히 잇게 하는 전무한 대사로 된다. 따라서 그것은 한두권의 문헌을 정리 발간한것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민족사적의미와 인류사적가치를 가지는것이다. 더우기 국제적으로 배신자들에 의해 선대령수들의 저서들이 모독매도되고있는 때에 주석님의 회고록이 속간보급되게 하신 령수님의 공적은 수령영생성에 이루어놓으신 또 하나의 기념비라 하겠다. 돌이켜보면 령수님께서서는 사상조류로 수령영생의 시원을 열어놓으셨다. 령수님께서서는 주석님께서 오랜 기간 집무를 보시던 금수산의사당을 《태양 집》으로 꾸리시고 주석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영존해계시도록 하셨다. 주석님의 탄생일을 태양절로 기념하게 하시고 주석님의 탄신년을 원년으로 주재년호를 사용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재년호는 오늘도 민족과 인류와 함께 계신다. 령수님께서서는 특히 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법제화하셨다. 그래서 주석님께서서는 오늘도 공화국주석으로 계신다. 주석님의 사상과 업적을 드림없이 승계해가시는 령수님의 충효의 행로에 주석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 령수님께서서는 주석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주력으로 민족을 결집하여 광복대업에 성공하신것처럼 승승의 선군정기로 압살과 재해, 재해의 난국을 타개하시며 강성대국을 건설해가신다. 주석님의 하늘같은 덕망대로 거례를 풀어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루어 가신다.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에 정을 부여하신 김정일령수님의 고결한 품모는 일찌기 김일성주석님께서 사범 김구 선생에게 베풀어주신 은공과 같은 사범적인것이라 언문들은 평하고있다. 이남민중은 령수님의 모습에서 주석님의 모습을 본다. 만민의 환호에 받들려 통일당상에 오르실 두분의 모습을 함께 본다. 그래서 이남민중모두가 주석님을 더 절절히 그리며 회고록을 민족의 만년제보로, 통일전서로, 세기의 대위헌전으로 뜨겁게 받아안는다. 지난 7월 8일 이남의 감방들에서는 좌익수들이 회고록(계승본) 8권의 《최후전전의 날》과 《개신》부분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세전주머니의 까만 천으로 추모명기를 만들어 왼쪽 가슴에 드리우고 해방의 은인이신 주석님을 절절히 경모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국군》장교들과 사병들은 휴전선 북경계선에까지 가까이 접근해 김일성주석님을 우러르며 저저마다 경의를 드렸다. 그들은 《태양회》를 뜻고 회고록을 탐독하며 서울 한복판에도 주석님의 태양상을 높이 모실 일념으로 사는 군인이었다.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는 《봄을 부르며》라는 제명으로 출판한 회고록(계승본)을 서점에 내놓았는데 하루에 1만 5천여부나 판매됐다. 놀라운 기록이었다. 회고록주독열풍은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회고록은 지난 7년간 9개 어문으로 번역출판돼 근 2백개 나라들에 보급됐다고 한다. 미국 하바드대학의 고위연구사는 회고록을 20세기의 《베스트 셀러》라고 했다. 그는 플로루스는 간고한 황해 끝에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했지만 자기는 황해없이 주석님의 회고록에서 자주화된 새 세계를 발견했다고 했다. 회고록주독자들은 회고록의 계승본에서 주석님의 환생을 본다라고 한다. 《한겨레》신문은 이런 민심을 담아 《주석환생, 회고록 계승본으로 잇따라》라는 제하에 회고록의 속간은 곧 주석님의 환생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회고록(계승본)에 대한 세인의 격찬은 그대로 김일성주석님의 환생에 대한 탄성이고 환성이자. 주석님께서서는 환생해서 오늘도 민족과 함께, 겨레와 함께, 인류와 함께 계신다. 선대령수의 위업과 유지를 한치의 차질도 없이 대를 이어 승계해가시는 충효의 화신 김정일령수님의 도의에 받들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회고록과 더불어 천세만세 영생하시리라. 수령영생의 개척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김정일령수님께 우리 이남민중은 삼가 경하의 인사를 드린다.

세기를 열어

큰뜻이 담긴 책은 민족의 미래를 바르게 열어준다. 나는 동서방의 위인전들을 읽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열려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에서였다. 그러나 역대 위인전들에는 위인의 과거만이 있을뿐 미래는 없었다.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에서 나는 비로소 미래를 찾을수 있었다. 나는 1993년 봄 미국에 들렀다가 동향친지의 집에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권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회포도, 상봉주도 밀어 버리고 밤새워 탐독했다. 세상이 환히 트이는 감격을 실감했다.

백두광야에 울렸다. 송진호씨는 《한국현대사》에서 보친보총성을 민족정기의 발원지로 읊미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백범 김구 선생은 보친보친투소식을 듣고 배달민족은 살았구나 하고 몇번이나 고향을 쳤다고 한다. 자주에 민족의 운명이 있다는 거례의 공감이라 하겠다. 주석님께서는 남에게서 소중 한자루 받음바 없이 자주로 일제를 치고 광복대업을 성취하셨다. 자주의 전통우에 민족의 나라를 세우시고 동서방의 어느 대국에도 굽어들지 않는 주체의 강국을 건립하셨다. 여기서 나는 회고록에 천명된 자주리념이 이북만이 아닌 온 민족의 생명이요 미래개척의 해발임을 감지했다. 주석님의 력사는 단합의 력사이다. 회고록에는 항일혁명력사가 동포형제자매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어 민족단합의 힘으로 일제를 쳐이긴 력적이지도 하다고 명시돼있다. 주석님의 사랑어린 환혼의 미시가를 나누며 동지애로 결속된 항일유격대가 하루 수천t를 먹었다는 백만관동군을 이겨내지 않았었다. 주석님의 단합에는 사상과 정견의 차이가 없었고 신앙과 재산의 유무가 없었다. 애국애족이면 그만이었다. 회고록에 천도교도정 박인진이 한때 일제의 선전에 속아 광복성업에 매진하는 항일유격대를 《비적단》으로 매도한 죄과를 주석님께 사과한 내용이 있다. 주석님께서 그의 과거허물보다 애국애족의 본심을 크게 믿고 민족의 단결이 민족대승의 길이라며 서로가 민족대단결을 끄는 단심들이 되어 조국광복회투리에 굳게 뭉치자고 말씀하셨다.

충효에 받들려

미래가 보이는 곳에 마음이 따른다. 나는 세기를 연 회고록의 글줄을 따라 과거로 간것이 아니라 미래로 간다. 나의 마음은 주석님께서 생전에 쓰신 회고록 6권에서 벗어지지 않았다. 주석님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에 새기신 불멸의 자욱들도 회고록에서 보고싶었다. 8.15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 헌치지도도 보내신 1만 8천 여개 단원들과 그 로정들에도 마음을 따라 읊고싶었다. 민중에게 창조적 안광을 띄우셨고 생애의 마지막숨결도 통일을 바치시어 통일천필을 남기신 주석님의 만고의 은공을 회고록에서 다 읽고싶었다. 그것은 나만의 소원이 아니었다. 경향각지의 뜻있는 모든 이들이 끊이지 않는 주석님의 회고록에서 참살을 누리려는 열망으로 부풀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느도 동했던가. 회고록이 속간되는 력사의 경이 가 이루어졌다. 경이적인 사면에는 위인이 있다. 회고록의 속간에는 회세의 위인이신 김정일령수님의 공적이 새겨져있다. 나는 지난 7월의 방북기간 그 진실을 알았다. 주석님의 위업을 한치의 편차도 없이 승계해가실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김정일령수님께서서는 회고록을 끊지 말고 계속 발간할테 관해 가르치셨다고 한다.

회고록은 곧 주석님의 력사다.

회고록이 끊긴다는것은 주석님의 력사가 끊기는것이고 조국의 력사가 끊기는것이며 민족의 명맥이 끊기는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고찰할 때 회고록을 속간하도록 하신 령수님의 가르치심은 민족대의를 담은 뜻있는 지언지령이라 하겠다. 원래 주석님께서서는 생전에 회고록에 담을 풍부한 내용과 생동한 자료들을 다 남겨놓으셨다. 문서로, 목음으로, 화면으로 남겨놓으신 그 유산들은 그대로 주석님의 력사와 위업적품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들이었다. 거기에 주석님께서서는 회고록의 총적구성안과 집필요강까지 친히 작성해놓으셨다. 그러므로 이 구성안과 요강에 따라 주석님께서 남겨놓으신 력사자료들을 묶으면 그것이 곧 주석님의 회고록으로 될것이었다. 령수님께서서는 이런 사실을 감안하시어 회고록을 주석님의 유고정리형식이 아니라 계승본형식으로 속간하도록 하셨다 한다. 계승본형식에 의한 회고록의 속간은 인류의 저출출판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로운 발견이며 그것은 주석님에 대한 령수님의 지극한 충효의 소산이다. 사람들은 맑스가 서거한 후 그의 유고를 정리해 《자본론》(2, 3권)을 맑스의 이름으로 출간한 엥겔스의 도덕 의리에 대해 일러왔다.

그후 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주석님의 회고록들을 다 읽었다. 주석님께서서는 회고록 1권의 서두에서 자신의 한생이 결코 남달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한생이 민족과 더불어 지나온 한생임을 자부하는것으로 만족할 뿐이라고 겸허하게 쓰셨다. 태양은 가시지 않는 법이다. 회고록의 겸허한 제공속에는 위대한 사상이 있고 민족의 진로가 있었다. 위대한 사상은 송고한 포부와 원대한 뜻에 기반한다. 주석님께서서는 회고록에서 민족을 하늘처럼 여기는 이민위천이 자신의 지론이고 좌우명이라 하셨다. 주석님께서 지니신 민족중배의 좌우명이 민족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 제힘으로 자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체사상을 창출케 했다. 회고록에는 주석님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리념이 있다. 거기에 자주실현의 투쟁사가 있고 민족단합의 승리사가 있다. 주석님의 력사는 자주를 위한 력사이다. 자주로 민족의 비탄속에 몸부림치던 민족을 깨우쳐 강도 일제의 정수리에 벼락을 내렸다. 남의 나라 문턱을 넘어 독립을 구결한 사대성향은 여기에 거하지 못했다. 주석님께서서는 민족자신이 손에 무장을 들고 자기 운명의 개척자, 파수군이 되게 하셨다. 반일자주항전의 총성은 장장 20성상

주동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반세기이상이나 민족분렬의 실음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민족은 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었지만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땀을 지닌 단일민족으로서 땀수 없이 령 결되어있다. 그런것만큼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함시키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데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조국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숭바른 길을 밝혀주는 시대의 기회가 있다. 그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

어 투쟁할 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하려는 것은 애국에 불타는 민족성원들의 한결같은 열망이며 의지이다. 전체 조선민족이 애국애족의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옹호고수하고 그 리행을 위해 너도나도 떨쳐나 힘차게 투쟁할 때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그 리행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민족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은 이룩되게 될것이다. 고영수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은 남녘 민심의 요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지향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는 겨레의 전적인 지지찬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 서울에서는 남조선의 민주로동당과 진보련대를 비롯한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들, 수많은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토론자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강하고있는 남조선보수세력에 대한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해 북남선언들은 반드시 리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국이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철회할것과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결의안》을 남조선 《국회》에서 채택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북남선언들을 지지하고있고 그 리행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분렬의 고통을 강요당하

고있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 서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투쟁보다 더 절박하고 보람찬 투쟁은 없다. 내외분렬주의세력들의 반통일책동에 악랄하게 조국통일의 앞길에 난관이 조성되고있지만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우리 민족끼리 넘어야 할 수 없다.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자신의 손에 달려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힘도 바로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6.15자주통일시대에 온 겨레는 북남선언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지 체험을 통하여 심장으로 절감하였으리라.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면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홀려넘치는 절절한 신념이다. 본사기자 김유정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가치

지금 우리 민족앞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반세기이상이나 민족분렬의 실음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민족은 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었지만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땀을 지닌 단일민족으로서 땀수 없이 령 결되어있다. 그런것만큼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함시키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데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조국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숭바른 길을 밝혀주는 시대의 기회가 있다. 그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

주동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해 한몸바쳐 투쟁할 각오로 가슴 불태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높이 들고나가야 할 참다운 애국투쟁의 가치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의 주체적노력으로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체의 힘과 노력으로써만 실현할수 있는 민족사적과제이다. 민족분렬의 장본인인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줄수 없고 외세의 의존하여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절대로 해결할수 없다. 오직 조국통일을 넘원하고 그것을 이룩할수 있는 숭바른 힘과 지혜를 가진 우리 민족의 거족투쟁만이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안아올수 있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수난의 력사에 새겨진 고

훈이며 진리이다.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하나의 강토에서 한과정을 이으며 만민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우리 민족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강렬한 지향과 의지가 깃들여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위해 투쟁하는 길만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어낼수 있는 진정한 애국의 길이다. 오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애국에 살려나 사람들은 누구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위해 한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6.15통일시대에 이룩된 모든 사변적성과들은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애국심을 지니고 공동선언들을 적극 지지 옹호하고 그의 리행을 위해 단결하

어 투쟁할 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하려는 것은 애국에 불타는 민족성원들의 한결같은 열망이며 의지이다. 전체 조선민족이 애국애족의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옹호고수하고 그 리행을 위해 너도나도 떨쳐나 힘차게 투쟁할 때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그 리행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민족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은 이룩되게 될것이다. 고영수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은 남녘 민심의 요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지향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는 겨레의 전적인 지지찬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 서울에서는 남조선의 민주로동당과 진보련대를 비롯한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들, 수많은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토론자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강하고있는 남조선보수세력에 대한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해 북남선언들은 반드시 리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국이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철회할것과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결의안》을 남조선 《국회》에서 채택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북남선언들을 지지하고있고 그 리행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분렬의 고통을 강요당하

고있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 서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투쟁보다 더 절박하고 보람찬 투쟁은 없다. 내외분렬주의세력들의 반통일책동에 악랄하게 조국통일의 앞길에 난관이 조성되고있지만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우리 민족끼리 넘어야 할 수 없다.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자신의 손에 달려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힘도 바로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6.15자주통일시대에 온 겨레는 북남선언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지 체험을 통하여 심장으로 절감하였으리라.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면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홀려넘치는 절절한 신념이다. 본사기자 김유정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통일번영을 이룩하자면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며 그것을 방해하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 하면서 공동행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우리 겨레는 이러한 민족운명개척의 원리, 민족공조의 위력을 6.15시대의 지나온 나날들에 절감했다. 반세기이상이나 반공과 불신으로 이어져온 북남관계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와 함께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그 나날에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과 지맥들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경이적인 사면들

이런이러 일어났다. 북남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기운이 날로 높아가는 속에 또다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

다. 그러한 침략적인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줄리 없다는 리 명명하다. 오직 전체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과 노력으로써만 대결과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을 안아올수 있다. 당국은 이를 거역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외세와의 범법적인 공조에 박차를 가하였다. 집권초부터 미국산전을 찾아다니며 《동맹강화》를 운운하고 일본과의 《관계복원》을 애걸해온 보수당

아내고있다. 외세와의 공조는 반민족공조이고 전쟁공조이다. 지난해 미국의 항공모함전단까지 끌어들이며 북침전쟁소동에 날뜬 남조선호전세력의 책동으로 서해바다가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의 바다로 화하고 전면전쟁의 직전까지 갔던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보수세력의 외세공조로 우리 민족에게 차려진것은 북남관계파괴와 조선반도정세악화밖에 없다. 한피줄을 나눈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대결과 암살책동에 계속 매달리던 언젠가도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고 이 땅에 전쟁밖에 더있것이 없다. 본사기자 최명재

외세와의 공조로 얻을것은

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조국통일은 철두철미한 한 피줄을 이은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할 민족사적과제이다.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 을 강점한 외세는 60여년 이 지난 오늘에도 조국통일에 장애만을 조성하고있

6.15자주통일시대를 통하여 우리 겨레가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민족의 미래는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자주, 민족공조에 있다는것을 확인해준다. 민족공조는 피를 나눈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의 지향이고 통일위업실현의 절박한 요구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보수

국은 북남관계문제를 《국제화》하려고 썼다. 《민중투쟁》을 다 써냈다. 《민중투쟁》의 주으로는 남북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느니 뉘니 하면서 민족공조를 《련합배타주의》로 모독하고 외세와의 핵공조, 전쟁공조, 《인련》공조로 동족과 대결해나선 그들의 범법적책동은 온 겨레의 분격을 자



조국통일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민심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은 누구도 거역할수 없다

지난 26일 남조선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보충선거에서 민주개혁세력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 구청장, 군수, 지방의회에 대한 보충선거에서도 민주진영이 우세를 차지하였다.

이번 선거는 민주와 파쇼, 진보와 보수, 시민사회세력과 구정치세력, 새것과 낡은것사이의 치열한 대결이었다.

특히 서울시장선거는 더욱 첨예하였다.

원래 서울시장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전통적으로 타고앉아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던 자리로서 전 서울시장도 얼마전 민심의 배격을 받고 수직스럽게 밀려났다.

더구나 서울은 남조선반동정치와 아성이며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곳인만큼 이번 시장선거는 다음해에 있게 되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가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격전장이었다.

피뢰보수패당은 이번 선거가 다음해 《총선》과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척도로 될뿐 아니라 자기의 본거지, 지형집을 고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사활이 걸려있다고 하면서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민주개혁세력후보에 대한 온갖 모략과 날조, 비방증상에 매

달렸으며 나중에는 《친북》감투까지 씌우면서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시민사회계의 혐오감을 더욱더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수세력의 비열한 책동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민주개혁세력후보를 더욱 적극 지지해나섰다.

특히 새것을 지향하는 젊은층을 비롯한 각계층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진보개혁세력후보의 구호들과 정책공약들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지지표를 몰아주어 오늘의 통쾌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번에 시민사회단체출신으로 선거에 나선 민주개혁후보에게는 돈도 없고 특별한 정치조직도 없다.

그러한 그가 강연과 친청,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보수세력에 도전하여 서울시장에 당선된것은 시민대중과 진보민주개혁세력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기때문이다.

하기에 이번 선거는 남조선인민들의 기개를 보여준 또 하나의 시민혁명이나 다름 없다.

이번 선거결과를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악당과 부정부패로 자주와 민족을 교살하고 민생을 도탄에 몰아넣었으며 북남 관계를 파국에 처하게 한 남조선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며 새 정치, 새

사회,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참다운 선택이다.

이번 서울시장선거에는 미국도 깊숙이 개입하였다.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피뢰보수집권세력과의 결렬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좌파진영이 선거에서 이기면 《동맹관계》가 위험하게 될수 있다고 하면서 내놓고 피뢰보수패당에 대한 편들기를 하였다.

피뢰패당은 그에 발맞추면서 상전과의 《동맹관계》강화를 《성과물》로 포장하여 유권자들을 유혹하려 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왔으며 결국 남조선민심은 선거를 통하여 친미사대세력에게 응당한 철추를 내렸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 서울시장선거승리는 친미사대, 반통일대결세력에 대한 자주통일세력의 빛나는 승리라고 할수 있다.

이번 선거는 민심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은 누구도 거역할수 없으며 진보민주개혁세력을 비롯한 각계층이 한데 뭉쳐 일터서면 반드시 이긴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에서 그 어떤 기만과 허위, 모략과 권모술수, 반공화국대결책동도 통하지 않으며 민심의 판결은 정확하고 현명하다는것과 남조선인민들의 슬기와 기

개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며 력사발전의 주체는 다름 아닌 인민대중이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인민대중의 앞길을 막을자이 세상에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심은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동족대결을 반대배격하고 자주와 민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고있다.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것은 패하기마련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여 다음해 《총선》과 《대선》에서 친미보수세력에게 결정적인 참패를 안기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 국면을 기어이 열어나가야 한다.

남조선당국과 《한나라당》은 이번 서울시장선거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보충선거결과에서 교훈을 찾고 대세의 흐름에 따라나서야 할것이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새 정치와 새 생활을 지향하고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달성하고야말것이다.

문 평 원
(《로동신문》에서 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조미고위급 회담이 진행될것과 관련하여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대표단과 스위스 바르위스 미합중국 대조선정책특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대표단사이의 두번째 고위급회담이 10월 24일과 25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다.

이런 회담에서는 서로의 령장에 대한 리해가 더욱 깊어지고 일련의 전진이 이룩되었다.

쌍방은 신뢰조성의 견지에서 미결문제를 도의해결하기 위한 조미접촉과 회담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6차회담을 전체조건없이 하루빨리 재개하여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을 동시에 발효하고 회담이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리행해나가기는 우리의 령장에는 변함이 없다.

남조선 지방자치단체보충선거에서 무소속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

26일 남조선에서 지방자치단체보충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초점으로 된것은 남조선인구의 다수가 집중되어있는 서울에서 시장을 선출하는것이였다.

무소속후보 박원순이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 라경원이 패하였다.

이번의 선거결과는 남조선의 보수세력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10.26지방자치단체보충선거가 진행되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개혁세력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배를 안기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것을 비롯하여 민주진영이 우세를 차지하였다.

선거와 관련하여 보수세력들속에서는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계파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이번 기회에 집권상층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이번 선거는 민주와 파쇼, 진보와 보수, 통일세력과 분열세력, 새것을 지향하는 시민사회세력과 낡은것을 고집하는 구대정치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장이었다.

서울시장선거는 그 대결의 전초선이였다.

남조선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서울에서의 시장선거는 매년도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의 향방을 가늠할수 있게 하는것으로서 그대로 《작은 대통령》선거로 불리었다.

10년간 서울시장을 차지하고있던 보수집권세력은 이번엔 어떻게 하나 시장자리를 다시 차지함으로써 독재권력을 연장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집권여당의 상층인물들이 총출동하여 거리를 돌며 선거유세를 하고 정책을 토론하는 마당에서는 《검증》의 미명하에 민주개혁세력후보에 대한 온갖 비난전에만 매달렸으며 지어는 《친북》이라는 감투까지 뒤집어씌우면서 《색갈론》공세까지 진행하였다. 그러나 선거에서 비참하게 패하였다.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서 민주개혁세력후보의 승리는 온갖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바라는 민심의 분출로서 반역 《정권》에 대한 심판이였다.

선거에서 20대, 30대, 40대의 투표자들이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반인민적 악정만을 일삼으며 낡은 정치를 고집하는 현 보수집권세력을 반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진보와

변화를 주장한 민주개혁세력에게 표를 집중시켜준것은 이에 대한 실증이다.

선거기간 현 집권자의 퇴진후 살게 될 호화주택건설문제를 비롯하여 보수집권세력의 상층인물들속에서 련이어 드러난 부정부패사건은 폭발적전대 이른 민심의 빛 《정부》감정을 그대로 선거에서 폭발시켰다.

이번 선거결과를 두고 남조선의 여론들이 《이번 선거구도에는 박원순 대 라경원구도라기보다는 반MB, 반오세훈판구도》였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서울의 25개구 중 특권축적이 몰려있는 강남의 3개구와 용산구를 내놓은 21개구에서 민주개혁세력후보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것은 재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향락만을 누리는 1%의 가진자들에게 대한 99%의 분노의 표시이다.

미국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 집권자를 《초청》하여 《환대》놀음을 벌이고 고위관리들을 남조선에 련이어 파견하여 그 무슨 《위협》타령을 늘어놓으며 《안보》론을 고취하는 등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동족대결정서를 고취하면서 친미보수세력을 밀어주었다.

그러나 민심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친미사대매국세력에게 철추를 내리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새것의 승리는 력사의 필연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민심은 친미사대와 파쇼독압, 동족대결의 낡은 정치가 아니라 자주와 민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새 정치를 주장하며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요구하고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들이 새것을 요구하는 민심에 역행하여 낡은것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매년도의 《총선》과 《대선》에서 오늘날보다 더 큰 수직과 참패를 당할것이다.

김응철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지난 27일부터 미국과 야합하여 《2011호국》이라는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벌어지는 이 훈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각종 공격용전투기와 직승기 등 수많은 최신전장장비들과 미해군과 해병대 500여명을 포함한 14만명의 방대한 전력들이 참가하고있다.

호전광들은 이번 훈련의 중점이 그 누구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합동작전능력을 숙달하는데 있다고 떠들면서 그에 맞는 기계화보병사단들의 생방훈련, 해병대사륙훈련 등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실전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호국》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온 남조선은 화악내가 풍기는 전쟁마당을 방불케 하고있다.

한편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과 함께 지난 28일 서울에서 제43차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를 벌려놓고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로 한 공중이기를 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벌려놓은 《호국》합동군사연습은 조

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이며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오늘 조선반도의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전쟁위험이 가장 큰 지역의 하나로 되고있다.

사소한 우발적사건에 의해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질수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불량난소동

조선반도의 첨예한 긴장상태는 세인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금 내외여론은 북남, 조미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기를 기대하고있다. 이에 부응하여 일련의 회담들도 진행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조성된 분위기에 맞게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체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것이 마땅하다.

내외호전세력들이 상대방을 위협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은 그들의 말수에 대화와 평화

를 가상하여 무분별한 《호국》훈련을 벌린 내외호전세력들의 모략의 산물이라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다면 마땅히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호전세력들은 북남사이에서 군사적으로 첨예한 서해 5도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다. 내외호전세력들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창설이후 연평도와 백령도를 비롯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것은 《제

2의 연평도사건》을 불러오겠다는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이번 훈련에 지난해에 비해 2배나 되는 방대한 무력을 동원시키고 단독으로 진행하던 상륙훈련에 미해군까지 끌어들이는것은 《호국》훈련의 침략적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도 북침을 위한 군사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길은 기어이 터지기 위한 매우 위험

천만한 전쟁모의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현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공모결락행위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불은 불로 다스리고 강에는 초강경으로 대답하는것이 공화국의 기질이고 행동방식이다. 내외호전세력들은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이 초래하게 될 파국적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대결소동을 당당히 견지하여야 한다.

김철호

친미사대 행위를 비난

남조선의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25일 외교통상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는 문평을 발표하였다.

문평은 외교통상부가 미국회를 통과한 《자유무역협정리행법안》 내용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고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대해 언급하였다.

문평은 외교통상부가 《국회》가 비준한 다음 미국의 리행법안을 검토할것이라고 한데 대해 단죄하였다.

문평은 외교통상부에 친미분자들이 가득차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굴욕적인 협정체결책동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과거독재세력의 악랄한 탄압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24일 서울고등법원이 과거독재세력에 의해 탄압당한 통일사회당사건관련자 5명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통일사회당은 1961년에 조직된 야당으로서 남조선사회의 혁신을 위해 《반공법》을 반대하고 통일을 주장하였다.

특히 《반공법시특별법》이니, 《테보규제법》이니 하는 파쇼악법의 제정을 반대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이들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독재세력은 통일사회당 성원들에게 《북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인민혁

명당재건위원회사건, 과학살자유족회사건, 민청학련사건, 《민족일보》사건 등이 과거 파쇼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조작된 모략사건들이라는것이 련이어 밝혀지고있다.

이것은 당시 독재 《정권》하에서 있었다는 간첩사건들이 모두 권력층의 집권유지를 위한것으로서 얼마나 불분명하였는가를 실증해 주고있다.

오늘 현 보수집권세력이 밀부리려 뒤흔들리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련대 통치배들이 써온 상투적수법 그대로 일진회사건을 비롯한 각종 간첩사건들을 날조하고있지만 진실은 결코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유신》독재의 망령이 배회한다

《북의 주장을 따르는 중북세력을 모조리 사법처리하였다.》

현 보수당국이 내건 이 주되는 탄압책은 남조선전역에 살벌한 파쇼독재의 란무장으로 만들고있다.

사회적 민주화와 개혁, 련북통일을 주장해온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이 매일같이 탄압당하고 생존권쟁지를 부르짖는 인민들이 경찰의 구두발과 쇠몽둥이에 얻어맞고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북을 찬양하는 선전물들을 게시한 리객기조종사를 비롯한 공무원, 장교, 변호사, 교수 등 70여명이 공안당국의 탄압대상으로 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이들중에는 《정부》의 권력유지와 정책실행에 부패한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누구보다도 명석한 판단력을 가지고 《정부》를 위해 일해온 그들이 인터넷을 통해 북을 찬양하였다는것은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한것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부터 우리나오는 동경과 혐오의 분출인것이다. 더우기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비방하면서 거짓선전만 매달리고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현 보수당국에 대한 응당한 비판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이 진리로 향한 민심을 가로막고 횡정을 쥔다고 우대대면서까지 파쇼독압소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제명을 다 산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남조선보수당국은 사상 류례없는 반역정책으로 저들의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정체를 만천하에 날같이 드러내놓았다. 그로 하여 남조선 각계층의 치초는 원한과 분노를 자아내고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이와 함께 도처에서 반보수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라오르고 민주와 개혁을 지향하는 정당,

단체들의 런대기운이 높아지고있다. 극도의 통치위기에 몰린 보수세력은 파쇼독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투쟁을 총칼폭력으로 억제하고 끌어져가는 명줄을 부지하려고 발악하고있다.

남조선공안당국이 파쇼적 탄압에 광분할수록 그에 대한 인민들의 항거는 더욱더 거세어질것이다.

오늘의 남조선인민들은 거것과 진실도 분간 못할 인민들이 아니라 파쇼독압에 순종하고 굴복할 인민들은 더욱 아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북을 찬양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있으며 그것은 료원의 불길마냥 남조선전역으로 확산되고있다.

이 거세찬 항거의 불길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소굴인 파쇼독재의 아성을 송두리채 없애버리는 화불이 될것이다.

본사기자 윤현주

파쇼독재청산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

최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단체성원들이 재판에 회부되거나 구속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당국이 고압제로 강도를 오염시키고 성폭행을 일삼는 미군을 처벌하지 못하고 일본의 과거청산회피

에 대응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억누르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민주, 진보세력이 굳게 련대하여 당국의 파쇼독재투쟁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골지의 대화학공업기지인 2.8비탈련합기업소와 하얀 색깔의 멋쟁이건물이 두 채 나란히 서있다. 흥남제약공장의 일부분이다. 얼마전 우리는 현대화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이곳을 찾았다. 아담하면서도 깨끗한 건물들과 잘 조성된 녹지들, 포장도로를 따라 아름답게 피어난 코스모스...

《마치 휴양소 같습니다.》

우리는 공장정문에서 만난 민병철지배인과 이렇게 첫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제품진열실부터 들렀다. 제품진열실에 전시된 의약품들을 통해 우리는 이 공장의 역사가 60여년을 헤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방직후인 주제35(1946)년 4월 이 지구를 현지도하시

현대화의 나래를 편 일터

흥남제약공장을 찾아가서

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합성제약공업기지를 건설할 데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 러전을 잡아주셨다. 공장은 1947년 나라의 첫 인민경제계획에 반영되어 건설을 시작하여 그해 7월에 조업하였다. 당시 공장에서는 첫 합성약제로서 술과피제를 만들어 아버지수령님께 보고를 올렸다고 한다.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장이 생산한 의약품들이 전시된 제품진열실은 공장의 자랑스러운 발전력을 보여주고있다.

흥남제약공장은 공화국의 모든 제약공장들에 원료약품을 생산보장해주는 공장이

의 뜻이 리해되었다. 2합성직장 푸라폴리노작업반과 4합성직장 클로르렉시딘작업반, 공업시험소 중성제약기지에서 만나는 노동자,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비록 사람속에 잘 알려지지 않아도 심장속에 남은 생이진짜 애국의 생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일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있다.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나무의 성장발육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요. 우리는 거목의 뿌리와 같이 인민들의 생명활동,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일할겁니다.》

현장들을 돌아보니 지배인

의 뜻이 리해되었다. 2합성직장 푸라폴리노작업반과 4합성직장 클로르렉시딘작업반, 공업시험소 중성제약기지에서 만나는 노동자,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비록 사람속에 잘 알려지지 않아도 심장속에 남은 생이진짜 애국의 생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일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있다.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나무의 성장발육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요. 우리는 거목의 뿌리와 같이 인민들의 생명활동,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일할겁니다.》

현장들을 돌아보니 지배인

을데 없는 멋쟁이공장으로 꾸려 어머니공장으로서의 체모를 갖추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공장에서는 넓은 부지에 산만하게 널려있는 낮고 작은 건물들을 대담하게 정리하고 생산을 집약화, 고속도화할수 있도록 특색있게 설계된 건물들을 새로 건설하고 현대적인 제약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제 현대화된 제약설비들을 들여다보고 컴퓨터화까지 실현하면 공장에서는 질이 훨씬 높아진 원료의약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더욱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공장의 밝은 전망을 상징하듯 하늘중천에 쌍무지개가 아름답게 비끼었다.

본사기자 박금일

질 좋은 단맛감이 쏟아진다

— 평양8월풀가공공장에서 —

평양8월풀가공공장은 30년 전에 건설된 그리 크지 않은 공장이다. 인민들의 단맛감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이 공장은 최근년간에 그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였다.

우림, 응집, 진공농축, 러과, 분무건조 등 모든 생산공정에서 첨단기술을 생산이론으로써 많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킬수 있게 되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러진 공장에서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식물인 8월풀을 원료로 파자와 빵, 청량음료, 된장, 간장을 비롯한 식료공업과 제약공업분야에 널리 쓰이는 질 좋은 단맛감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우리와 만난 김정옥 가루당작업반 반장은 사람들의 생활에 쓰이는 단맛감문제가 원만히 풀릴수 있게 되었다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생산하는 8월풀당은 단맛이 사랑가루에 비해 수백배나 높은 우점을 가지고있습니다. 종전에는 식

료공업에서 요구되는 단맛감 문제를 주로 사랑가루에 의존해왔으나 이제부터는 8월풀당을 가지고 보장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장이 현대화된 결과 지난 시기 쓴맛과 짠맛을 내던 8월풀당이 이제 사랑의 고유한 맛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

8월풀로 생산하는 모노시트 가루는 식료품에 들어가도 색과 맛을 변화시키지 않고 인체에도 나쁜 작용을 하지 않을뿐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신장염 등에 치료약으로도 널리 쓰인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인민들에게 질 좋은 단맛감을 생산하여 보장해주는 복무자로서의 긍지가 어려있었다.

단 맛 감 문제, 어찌보면 사람들의 생활에서 그리 큰 자리를 차지한다고 볼수 없다. 하지만 인민들에게 보다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것이라면 크고 작은 문제가 따로 없으며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숭고한 뜻이다. 숭고한 그 사랑에 떠받들려 오늘 평양8월풀가공공장은 옛 모습을 흔적도 없이 털어버리고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보배공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본사기자



수기 강성대국이 보인다 (7)

보통문거리고기상점에서

어제는 옥류관에 철갑상어로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꾸러지더니 오늘은 철갑상어를 산채로 파는 상점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다.

보통문거리가운데 위치한 상점에 이르니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이라고 쓴 간판이 한눈에 안겨왔다. 특색있는 건물외형도 마음에 들었지만 상점안은 더욱 화려했다. 황홀경을 이룬 장식등, 거울을 붙인 대리석기둥들, 은은한 바다라일 등 보이는 것마다 탄복을 자아냈다.

고기상점이라는 이름 그대로 매대마다 철갑상어, 자라, 통정어, 칠색송어, 붉은 대게, 문어 등 수산물들과 소고기, 칠면조고기, 메추리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한 고기류들이 그득그득 쌓여있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등심살, 가슴살, 세겹살, 꼬리, 엄통, 발썩, 위, 간별로 포장되어있는데다가 통졸임, 꼴바싸, 햄 등 고기가공제품들도 없는것이 없어 손님들은 요구에 따라 사가고있었다.

상점을 돌아보면서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것은 모든 상품들이 다 우리의것이였다는 것이었다. 소고기는 공화국의 유명한 송암명기소목장의 것이였고 철갑상어와 통정어는 새로 도입한 통정양어장의 물고기들이라고 한다.

상품가격도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낮았다. 한때 기업체에 몸담았던 경험에 비추어 제품생산에 들어간 원가를 대충 따져보아도 리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상점의 립은속지배인이 상품가격이 낮아진 감동깊

은 사연을 들려주었다.

얼마전 완공된 상점을 찾으며 철갑상어와 통정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의 가격을 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가격이 높다고, 인민들이 마음놓고 사갈수 있게 하자면 가격을 훨씬 낮추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 가격까지 몸소 정해주시었다는 것이다. 사실 흔히 맛보기 힘든 귀한 물고기들인데다가 거기에 들인 막대한 원가에 비해 볼 때 원래 가격도 높게 정한것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려지도록 하기 위해 가격을 훨씬 더 낮추도록 하시였으니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던 그 어떤 수지타산도 앞세우지 않으시는 그의 인민적사랑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원가보상의 원칙에서 상품가격을 정하는것은 보편화된 경제법칙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원가보상을 고려하면서도 나라의 인민적시책을 철저히 구현하여 상품가격을 정하고있으



니 이것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독특한 계산법인것이다.

전반적무로교육제와 전반적무상치료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바로 이러한 계산법에 의해 세상에 나왔으며 나날이 더욱 꽃피어 나가고있는 것이다. 현대적으로 꾸러진 고기상점에서 희귀한 물고기들과 각종 고기들을 마음껏 사면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들어선것 같기도 하며 바라는 이 꿈같은 현실도 바로 아버지장군님의 하늘같은 인민사랑이 있어 눈앞에 펼쳐질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상점을 떠나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고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고 당부하시였다고 한다. 가슴뜨거운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격정의 웨침이 솟구쳐 울렸다.

《장군님의 은정속에 마련된 화려한 고기상점이 인민들의 여러가지 물고기와 고기들을 마음껏 사가고있습니다.》

재북평화통일축진협의회 회원 정규진

북중의 북을 안고 산다

나는 이번에 지린 지구협회 모범지구 일군들과 함께 조국을 방문하였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조국을 방문하였지만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켜가는 조국의 벽찬 현실을 대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느낌과 감동을 받아안곤 하는 우리들이다.

반반년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변영의 시대가 펼쳐진 선군조국의 모습은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긍지와 자랑으로 되고있다. 지구상에는 조국을 떠나 이역에서 사는 해외교포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그들모두가 자기 조국에 대한 긍지를 안고 사는것은 아니다. 나라는 있어도 땃땃이 자랑할만한 참다운 조국이 없기때문이다. 우리 재중동포들 역시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살길 찾아 정든 조국 산천을 떠나는 불쌍한 망국

의 후손이 아니었던가. 그런 우리가 오늘은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한 조국이 있어 보람됨이 어깨를 짝 펴고 살고있다. 령도자가 위대해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해외동포들의 영예도 빛나는 법이다. 지난 8월 로씨야 씨비리 및 원동지역과 중국북북지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로씨야와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과 인민들이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열렬히 환영하고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그토록 흠모하였던 지 않는 탁월한 위인을 모신 공화국의 해외공민인 긍지와 자부심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이번에 수려한 묘향산에 웅장하게 건립되어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다. 절세의 위인들을 흠모하

여 세계의 수많은 당과 정부, 각계층 인사들이 삼가 올린 진귀한 선물들이 보존되어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은 그대로 장군님께서 지니신 높은 국제적위위와 특출한 위인상을 보여주는 전람관이었다.

지린성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남다른 영예가 있다. 민족해방위업에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고 주석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그 긍지는 오늘 태양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백두산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으로 하여 만리창공에 닿고있다.

우리 재중동포들은 몸은 비록 이역에 있어도 노래 《우리는 조선사람》을 즐겨 부르며 가슴뛰고 살고있다. 앞으로도 나는 선군조국의 해외공민인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아버지주석님의 간성하고 아버지정중하게 모시며 통일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애국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지린지구협회 회장 황진성



은혜론 사랑이 펼친 중앙동물원의 새 풍경

인민의 문화휴식지로 훌륭히 꾸러진 중앙동물원에서 관람차들이 달리는 새 풍경이 펼쳐져 근로자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경쾌하게 오고가는 관람차들에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 중앙동물원에 새형의 관람차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내운반차들을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 차들은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축전차로서 소음과 유해가스오염 등이 전혀 없을뿐아니라 성능이 좋고 운전조작이 편리하다.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맵시있는 관람차들을 타고 한

시간경도이면 100여정보나 되는 드넓은 동물원의 곳곳을 돌아볼수 있다.

지금 동물원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멋진 관람차들에 몸을 싣고 많은 선물동물들의 재주도 보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 있다.

그들모두는 인민의 행복속에 기쁨을 찾으시며 어제는 꽃마차의 방울소리를 높이 들려주시고 오늘은 관람차에 태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심한 보살핌에 감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날로 커가는 아버지사랑과 인민의 량만을 싣고 달리는 관람차들을 바라보며 중앙동물원 종업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더 많은 일을 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너를 위해 나를 바쳐

는 어글어글한 눈매에서 우리는 그의 심중을 읽을수 있었다. 《대학생인 철진이가 우리 딸에게 청혼하려고 왔던 날 저는 평소대로 밥을 세웠습니다. 철진이로 말하면 나이 찬 딸을 가진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탐만 한 젊은이였지요.》

중학시절엔 학교적으로 손꼽히는 축구선수였고 오늘은 어엿한 대학생이 된 그를 어느 부모인들 마다하랴. 그런 그가 조국을 위하여 환물을 서슴없이 내면 자녀의 절도 없는 벗이 되겠다고 나선것이다. 그것은 중학시절의 우정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보다 조국을 위해 바친 자녀의 뜻을 아끼는 마음에 대한 선망과 그 뜻을 든든히 받쳐주는 줄기가 되고싶은 충동이 앞섰기때문이었다. 하지만 자녀의 부모들은 청년의 진정을 선뜻 받아들이수 없었다.

그러나 청년의 고결한 마음은 끝내 자녀의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야말았다. 《지금도 사위의 부모님들에 대한 미안한 심정뿐입니다. 두다리를 쓸수 없는 자녀를 위한 배려로 삼을 용단을 내린다는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고혜숙녀성의 어머니 김정녀성은 뜨거웠던 치밀어올라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돈집에서 머느리감을 보려고 왔을 때 있던 일이다. 남들처럼 딸자식이 총각의 손에 이끌리어 시부모를 뵈옵게 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총각의 부모들이 집을 찾아왔는데도 무릎걸음으로 시부모가 될 분들을 맞이하여 하는 딸을 보며 자녀의 부모들은 흐르는 눈물을 견줄수 없어 사돈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돈내외는 오랜 구면인듯 인사를 나누고 는 제 딸처럼 자녀를 부축이며 그런 몸으로도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건설장들에 노예신물을 안고 찾았다는 정신이 훌륭하다고, 이런 딸을 키워준 부모들이 들보인다고 하는것이였다.

이 말에 처녀의 아버지가 거듭 사양하며 철진이와 같이 고상한 정신을 지닌 총각이 쉽지 않다고 하자 사돈내외는 우리 철진이야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다 나라에서 키웠지 우리가 키웠는가, 낳거나 했지 나라에서 키웠다면 그런 총각들이 어찌 우리 철진이뿐이겠느냐며 오히려 처녀를 칭찬해나섰다.

두다리가 불편한 몸으로 건설장들을 찾아다니며 건설자들에게 힘과 고무를 안겨준 이 집의 혜숙이도 사실이야 다 나라에서 키우지 않았는가, 우리 부모들은 육체만 낳았지 이 애들을 키운것은 고마운 우리 사회제도라고 하였던것이였다.

제도가 좋아 온 사회에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



자강당이 선군시대와 더불어 나날이 변모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정든 고장이라고 불러주시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국토사랑, 도시경영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국토관리를 전방성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도내 수백km구간의 도로포장, 개건보수가 진행되었으며 주변들이 멋있게 정리되었다. 수백정보의 양묘장들에서 생산된 수천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산들에 뿌리내렸다. 도시경영사업에서도 전환이 이루어지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은정속에 룡림군이 친지개척하였다. 읍지에는 군문화회관, 물놀이장, 국수집, 편의봉사시설들이 번듯하게 일떠서고 친수백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었다. 강계, 만포시에서는 수십 리형성을 특색있게 하였다. 최현시와 동신, 중강, 장강, 위원군에서도 지대적투성에 맞게 주민지구들을 구성하고 봉사망리물고기, 가로동설치 등을 하여 거리를 개면시키고있다.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을 꾸리였으며 도로주변에 화단들을 형성하고 많은 꽃들을 피워놓았다. 본사기자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되는 자강향

리구간의 도로를 포장하고 지대정리, 살림집건설, 수만평의 지붕공사를 하여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고있다. 지난해 자연재해로 혹심하게 파괴되었던 우시군 읍지에는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수백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고 불장까지 이체롭게 해놓았다. 초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

